

축제·행사 예산, 지난해 수준 동결

2017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정부 승인 국제행사·문체부 지원 축제·전국체전 등 예외

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 축제, 행사 예산 범위가 2015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정,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중으로 각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내년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는 행사·축제를 2015년 최종 예산 수준(전국 1조1423억원)에서 운용하며,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축제, 전국체전 등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이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행사·축제 1만5240건 가운데 1000만 원 미만인 행사가 6850건(44.9%)을 차지하는 등 행사·축제가 소모성 또는 낭비성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896건·5.9%)보다는 각종 단합대회, 체육행사 등 주민화합 목적의 행사·축제가 51.4%(7841건)를 차지했다는 게 행사부의 설명이다.

또 각 지자체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행사 실행을 사전에 심의하고,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해 부실한 행사·



리우올림픽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 가동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1일 총부 오송 질병관리본부에 마련된 '리우올림픽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이 24시간 본격 가동돼 직원들이 브라질 주요 감염병 발생 동향 등을 살펴보고 있다. 상황실은 올림픽 참가 선수단 333명, 공연단 80명, 기자단 124명 등 현지 인력의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총괄 지휘하게 된다.

축제를 자율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매년 행사·축제를 전수조사 분석하고 원가정보 공개항목을 확대한다. 절약된 예산은 지역 명품축제, 농산물축제 등에 활용하거나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행사·축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기준은 이밖에 지자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편성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토록 했다.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쓰레기종량제 봉투, 위생용품 등 물품으로도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김성렬 행사부 차관은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에 대해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지역 명품 행사·축제는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시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경쟁률 6.5대 1

160명 모집에 1,037명 지원... 필기시험 27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 경쟁률이 6.5대 1을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5~27일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60명 모집에 전국 361개 특성화고 등에서 1,037명이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150명 선발에 1,080명이 지원해 7.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직군별로는 87명을 모집하는 행정직에 490명이 지원해 5.6대 1의

경쟁률을, 기술직에는 53명 모집에 417명이 지원해 7.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우정직에는 20명 선발에 130명이 지원해 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필기시험은 오는 27일에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달 2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한 학교에서 최대 5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 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뉴스시스

전북 '물놀이 위험구역' 남원·무주 집중

8개 시·군 52개소 지정

남원과 무주에 물놀이 위험구역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오는 15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도내 하천과 강, 계곡 등 물놀이지역을 전수 조사해 8개 시·군 총 52개소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위험구역을 시군별로 보면 남원시

가 1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무주군이 17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장수군 5개소, 순창군 4개소, 완주군 3개소, 진안·임실군이 각각 2개소, 고창군이 1개소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지정된 물놀이 위험구역은 사실상 물놀이가 불가능한 곳"이라며 "도내 10개 시·군 111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송하진 전북지사 내일까지 여름휴가 돌입

송하진 전북지사가 사흘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3일까지 송하진 지사가 가족들과 함께 도내 관광지에서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휴가기간 송 지사는 하반기 도정 운

영방향 등을 구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일정 없이 휴가를 보내지만, 도정 주요 현안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성과연봉제 연내 미도입 지방공기업 총인건비 동결

정부가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공사·공단들에게 경영평가 감점 외에 총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동결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성과연봉제 미도입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평가 감점(3점) 외에도 도입시기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연내 미도입시 총인건비를 동결(0%)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공공기관의 총인건비를 3%로 인상이

행차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 기관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성과평가시스템 개선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전 지방공기업이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행차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인 전국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137개(96%)가 도입을 완료했다.

미도입기관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대전도시공사 등 6곳이다. /뉴스시스

박 대통령 지지율 TK서도 급락... 첫 30%대

리얼미터 '7월 4주차'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 31.6%(TK 35.8%)·부정평가 60.7%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치적 고항인 대구·경북(TK)에서 30%대로 떨어졌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이 기관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CATI)·스마트폰앱(SPA)·자동 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84%)와 유선전화(16%) 병행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실시한 7월 4주차 주간집계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31.6%에 머문 반면, 부정평가는 60.7%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3.8%p 떨어

졌고, 부정평가는 1.9%p 올랐다. 부정평가의 경우 지난 5월 4주차(61.3%) 이후 2개월 만에 60%대를 넘어섰다. 박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의 여당 참패 여파로 지난 4월 4주차 조사(긍정 31%, 부정 64.4%)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까스로 최저치를 면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텃밭인 TK지역에서의 추락이 눈에 띄었다. 긍정평가가 35.8%, 부정평가가 57.6%를 기록했다. TK에서 긍정평가가 3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울산(PK) 지역에서의 긍정평가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전주 대비 9.5%p가 빠진 34.6%

에 머물렀다. 부정평가는 53.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7.8%p↓·43.6%→35.8%), 광주·전라(3.3%p↓·22.9%→19.6%), 경기·인천(2.5%p↓·32.5%→30%), 대전·충청·세종(1.7%p↓·39.3%→37.6%)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리얼미터는 "박 대통령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은 2주째 잇따르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논란과,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사드배치 논란, 여당 지지층 이탈을 불러온 '친박실세 공천개입 의혹' 파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반기

문 유엔사무총장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20.5%를 기록한 문 전 대표는 반 총장(20.4%)을 0.1%p차로 따돌리며 9주 만에 1위 자리를 꿰찼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10.1%로 3위에 머물렀고, 박원순 서울시장(4위·6.4%)이 그 뒤를 이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5위·5.9%)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6위·4.8%)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28.5%를 기록한 새누리당이 1위를 달렸다. 더민주(25.4%)는 2위, 국민의당(3위·13.5%)과 정의당(4위·7.8%)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응답률 25일 8.5%, 26일 8.3%, 27일 8.3%, 28일 8.4%, 29일 8.3%)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시스

여름방학스피치 특강모집
스피치·웅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CEO 과정 담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연자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움)
 ③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